

'괴테 석학' 전영애 교수에게 배우는 삶의 지혜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 전영애 지음 최경은 정리

"하루 하루는 한 장의 편지/ 저녁마다 우리는 그것을 봉인한다/ 밤이 그것을 멀리 나른다/ 누가 받을까"(라이너 쿤체 '매일' 전문)

한겨울, 나긋한 목소리로 시 한편을 읽어주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진다. 유튜브 채널 '괴테 할머니 TV'의 전영애 서울대 명예교수다. 바이마르 괴테 학회로부터 아시아 여성 최초로 '괴테 금메달'을 받았고, 제3회 라이너 쿤체상, 제11회 이마막상 등을 수상한 그는 현재 괴테의 모든 글을 번역해 한국어판 '괴테 전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영애 교수가 펴낸 '괴테 할머니의 인생 수업'은 그가 유튜브 채널에서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은 내용을 채널 제작자인 최경은이 갈무리한 책이다.

독문학자라는 정체성과 함께, 정원사는 그의 또 다른 이름이다. 경기도 여주시에 20년 동안 여백서원과 괴테마음을 만들고 있는 그는 "뜻을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 "그렇게 큰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가"를 실물 예(例) 하나를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 지금은 '홀로 아름답게, 함께 더 아름답게'라는 정원의 구호처럼 자발적으로 서원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귀가는 공동체 정원이 됐다.

모두 4부로 구성된 책은 우리 시대의 어른이 들려주는 잔잔한 이야기로 깊은 울림을 준다. 희로애락이 어우러진 삶 속에서 걸어 올린 글들과 괴테를 비롯한 독일 문학가들의 작품과 일생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괴테 할머니 전영애 교수. <문학동네 제공>

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전해준다.

그는 괴테를 만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사람은 드물어도 종종 만나지만 "나이 들수록 더 새로워지는 사람"은 괴테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전율은 인간의 최상의 부분, 세상이 제 아무리 인간에게 그런 느낌을 심사리 안 줄지라도 감동되었을 때, 엄청난 것을 가장 깊이 느끼지."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대목을 통해 그는 "전율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놀라며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 있음"은 인간이 지닌 가장 큰 덕목임을 이야기한다. 더불어 "세상에 대한, 옆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을 기을 일 것"도 제안한다.

또 자서전의 전범이라 생각하는 '시와 진실', "하나의 세계가 열리는 일"이라 고백한 '서-동 시집' 등 괴테의 대표작을 통해 갑자기 닥친 고난에 대처하는 법, 목표하는 바를 바르게 이루는 법 등에 대해 들려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어야 할 것은 괴테의 저작을 인용해 '뿌리와 날개'라고 말하며, "우리는 더욱 더 같이 잘 살아야하고, 둘러볼 줄 알아야한다. 내 아이 뿐 아니라, 내 아이가 살아가야할 세상에도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한다. 더불어 "천재란 노력하는 능력이다"라 했던 아버지의 가르침도 되새긴다.

어른으로서의 다짐도 눈길을 끈다. "많은 경험과 지혜를 그저 내 몸 하나 간수하는 데만 쓰지 않고 나의 바깥, 나 말고도 어쩌면 나보다 경험이 조금 적을, 어쩌면 지혜가 좀 작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매워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마음에 새기고 "젊은 사람들 하는 일에 간섭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는다.

그밖에 철학과 예술, 종교, 윤리와 같은 것들을 소박한 민중 언어로 담아낸 '그림 동화', "한 권의 책은 우리의 얼어붙은 바다를 깨는 도끼여야 해"라는 카프카의 편지글, 헤르만 헤세의 명작 '데미안' 등 자신이 번역한 독문학 작품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전한다.

괴테 할머니는 괴테마음을 작은 정원집에 괴테의 책상과 의자를 만들어두었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자신의 인생을 한번쯤 생각해 보면 좋겠다고 말한다. 괴테마음에 언젠가 들러보고 싶어진다. <문학동네·1만5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마음의 설계도=심리적 고통에 휩싸인 마음을 돌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마음을 천천히 관찰한 뒤에 상황에 맞는 변화를 시도하는 일이란 중요하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 현실이 괴로울 수록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의 기본적 심리구조와 부모와의 애착, 자존감 문제 등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 <위즈덤하우스·2만4000원>

▲직관의 폭발=창조적 사고활동인 직관은 개인이 경험을 통해 축적한 무의식의 발현이다. 기억의 다양한 요소들이 광역 네트워크와 연결되면서 스파크가 될 때 직관적 사고작용이 발휘된다. 뇌의 양대 시스템은 물론 집중계, 분산계 등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만 직관적 사고작용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 AI가 인간의 직관적 사고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초병렬형 사고'와 '오감 자극'의 방법을 말한다. <웅진지식하우스·1만8000원>

▲노파학자는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AI시대에 책을 잘 읽고, 현명하게 지식을 수용하는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세계에서 쏟아지는 정보 사이에서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갖고 정보를 변별해야 하며, 알고리즘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 안목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독서가 뇌에 좋은 이유부터 책 읽기로



공감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는 법, AI시대에 참조할 만한 '동적교양'의 가치를 역설한다. <어썬그래이·1만8000원>

▲인구는 내 미래를 어떻게 바꾸는가=인구감소가 채감되는 상황 속에서, 나의 미래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 바꿀 수 없는 미래 속에서 인구구조로 미래 시장을 공략하고 일자리를 예측하는 법을 말한다. 정해진 미래에서 개인의 직업을 찾는 데 MZ를 넘어 잘파세대가 어떤 방법론을 채택할지 분석한다. 인구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출산율을 인구현상의 일환으로 판단하고, 인구학의 창시자 맬서스부터 미래 인구학 이론까지를 돌아본다. <김영사·1만3500원>

어린이·청소년 책

"타는 목마름으로 '생명세상' 갈구한 김지하 재평가돼야"

김지하를 다시 본다

염무웅 외 엮음



지난 2022년 5월 타계한 김지하를 한 단어로 규정할 수 없다. "뾰족 깊이 시인이고 예술가"(염무웅)였고, "20세기 후반 척박한 한반도에서 누구도 발상하지 못한 '생명운동'을 주장한 '생명사상가'(임진택)였다. 또한 "시인, 극작가, 평론가, 미학자, 문인화가, 사상가,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희의 유신 독재에 온몸을 부딪쳐 정치투쟁을 벌이다가 투옥된 민주투사(정치창)였다. 그리고 '생애 후반, 붓을 놓지 않은 김지하는 실로 위대한 문인화가"(유홍준)였고, "시인으로서, 사회적 실천가로서, 구도적 사상가로서, 어떤 경우에도 끊임없이 자신과 주어진 상황의 경계를 넘어 '이 이상' 이고자 했다(김사인)".

그럼에도 김지하가 세상을 떠났을 때 문화계는 물론 대중들은 제대로 추모하지 않았다. 다만 고인의 오랜

벗과 후배들이 49재 추모 문화제와 1주기 추모 학술심포지엄을 열어 그를 기렸다. 임진택 명장(마당극 연출가)은 신간 '김지하를 다시 본다'를 펴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밝힌다.

"저항시인으로서의 김지하는 물론,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운 그의 반독재투쟁 행적,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사상가이자 생명운동가로서의 김지하가 누구였는지 세상에 다시 한 번 간곡히 알려져 세상사람 모두를 '생명의 세계관에 입각한 문명전환의 길'에 나서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책을 출판하는 가장 큰 이유이자 목적이다."

신간은 크게 1부 '김지하 추모 학술 심포지엄'과 2부 '김지하가 남긴 글과 생각'으로 구분된다. 다시 1부는 ▲김지하의 문학·예술과 미학 ▲김지하의 그림과 글씨 ▲민주화 운동과 김지하 ▲김지하의 생명사상과 생명운동으로 나눠 김지하의 삶과 예술세계 속으로 깊이 파고든다.

염무웅 문학평론가(영남대 명예교수)는 '시인 김지하가 이른 문학적 성과와 유산'에서 "평생에 걸쳐 그의 영혼을 지배한 것은 강철 같은 행동이나 메마른 과학이 아니라 근원에 대한 갈망으로서의 혼돈·방황·사랑이었던 바, 그것은 바로 시였다"고 말한다. 김봉준 화가는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요. 가운데도 아니다. 새로운 길을 찾는 사람이다"라는 김지하의 말을 인용하며, "한국마당문화운동은 한국 민주화 운동과 동행했으며 지금도 계속되는 촛불항쟁의 뒷심이며 지역문화운동의 모태"라고 평가한다.

박맹수 원광대 명예교수는 '김지하 생명사상의 뿌리-동학을 중심으로'를 통해 감옥 안에 뿌리를 내린 풀씨를 보고 '생명'에 대한 경성(靑性)을 한 일화를 소개하며 "김 시인의 눈으로 본다면, 동학(東學)은 아직도 진정한 복권을 이루지 못했다. 그가 평생토록 '생명의 눈'으로 보고자 했던 동학과 그것의 혁명적 표출이었던 갑오동학혁명은 여전히 미복권 상태이다"고 강조한다.

2부 '김지하가 남긴 글과 생각'은 1975년 정부의 날조된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옥중에서 쓴 '양심선언'과 '로터스상' 수상연설문(1981년) 등 8편의 글을 수록했다. 1054페이지에 이르는 책갈피마다 '인간 김지하'를 제대로 바라보고 재평가하려는 고인의 오랜 벗과 후배들의 담방울이 오롯이 배어있다. <개마서원·5만4000원>

/송기동 기자 song@kwangju.co.kr



▲책으로 뭘 하지?=염소아저씨의 집에 빼곡하게 책이 꽂힌 상자가 도착한다. 아저씨는 책을 쌓아 형형색색의 벽을 만들고, 무더운 여름이면 책을 부채 삼아서 더위를 이겨 낸다. 태어난 뒤 한 번도 독서해 본 적 없는 염소는 책을 활용해 낮잠 그늘도 만든다. 책에 담긴 상상력을 통해 동물 친구들이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피카주니어·1만6000원>

▲우리들의 아지트=모래처럼 반짝이고 포근한 아지트를 찾아 어린이들이 길모퉁이 뿔뿔이 모인다. 전학 온 다희와 내일 전학 가는 승우는 마법의 공간을 방문해서 서로 비밀을 나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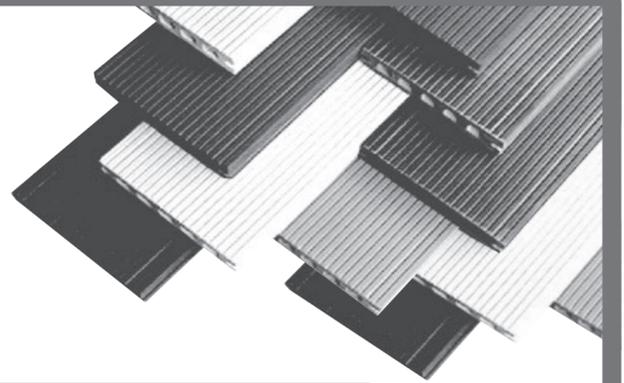
의 가치를 일깨우는 '강아지 키우는 법 알려줄까?', '비밀의 모래시계' 등 우정과 사랑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단편 동화들이 수록돼 있다. <뜨인돌어린이·1만3000원>

▲최악의 위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상어를 물리치거나 쓰나미를 피하는 법, 화산이 폭발할 때 살아남는 방법과 눈사태에서 생존하는 비법, 타란툴라와 잘 지내는 법 등 극한 모험 상황에서의 생존법을 제시한다. 북극곰의 공격을 마주하거나 나침반이 없어도 방향을 알아보는 비법, 빙산에 갇혔을 때 탈출하는 요령 등 유용한 내용도 다뤘다. <풀과바람·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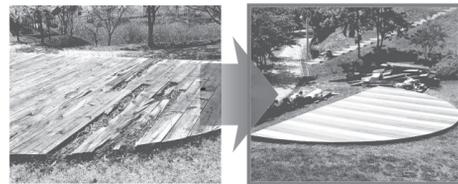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